

<서평>

타이포그래피로 ‘다시 만난 세계’
프라차티파타입, 『몹타입: 태국의 타이포그래피
민주화 투쟁 아카이브』, 서울: 소장각, 2025.

김 미 혜*

2020년 10월 방콕 시내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이전 시위에서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고압 물대포를 겨누는 것에 대한 반발의 표현이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투쟁은 한국과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시위대는 시공간을 넘어 연계하고 연대한다. 시위문화란 “시위대가 상징적 행위, 곧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자신의 요구를 적은 신문과 팸플릿 등을 배포하는 것 등으로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시위의 ‘대의’를 경험”하는 것이다(송찬섭 외 2023). 우리는 태국과 미얀마의 ‘세 손가락 혁명’, 홍콩의 ‘우산 혁명’과 같이 시위에서 사용하는 상징어에 익숙하다. 하지만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스터, 피켓, 현수막 위에 새겨진 시각적 목소리, 즉 글자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여기서 글자는 문자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뿐 아니라 글자의 형태인 서체를 포함한다.

국내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정치, 경제, 역사, 어문학에서 사회, 문화, 교육, 이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전제성 2019). 그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kimmmihye@snu.ac.kr

러나 일부 특정 분야의 미술사 연구를 제외하면(강희정 2018), 시각 예술과 디자인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운동 연구는 대부분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자의 연구이며, 시각문화적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뭉타입: 태국의 타이포그래피 민주화 투쟁 아카이브』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마주할 신선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태국 민주화 현장에서 발화된 시각적 목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준다. 이 목소리에는 지난 20여 년간 태국에서 이어져 온 정치적 양극화와 탄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국인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민주화 투쟁과 타이포그래피

민주화 투쟁과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관계일까?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글자 형태를 다루거나 글자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기술과 그 표현”을 의미한다(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2). 직관적인 이해와 정서를 촉발하는 프로파간다에서 타이포그래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타이포그래피는 저항과 해방의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여 선언문, 격문, 신문, 잡지, 포스터와 같은 인쇄 매체부터 깃발, 현수막, 뜨개물과 같은 직물 매체,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홀로그램을 활용한 영상 매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 문맹자에게는 하나의 이미지로, 문해자에게는 문자로 인식되며 상징적 의미를 전달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하는 데에는 컴퓨터나 프로그램과 같은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으로 그릴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민주적 도구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정치적 의사소통에서 타이포그래피는 특정한 효과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한 계산과 의도적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Haenschen et al. 2020; Chizhova 2022). 예컨대 국왕모독죄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태국의 레드 셔츠 시위에서는 군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자 은유와 수사를 활용한 다양한 그래피티(graffiti)와 서체가 사용되었다(12쪽). 추천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책은 단순한 ‘글꼴 견본집’도, ‘아트북’도 아니다. 태국 정치 운동가와 작가(디자이너)의 실험을 기록하고 정리한 자료로서, 타이포그래피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정치적 사건들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도구의 민주화’, 과정과 기록

프라차티파타입(PrachathipaType)은 타이포그래피를 정치적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디자이너 집단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프라차티파타이(*prachathipatai*)¹⁾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결합해 이름을 만들었다. 프라차티파타입이 제작한 폰트, 레터링, 그래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청년 시위에서 사용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라차티파타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과 도구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확산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도구의 민주화”를 강조한 바 있다(art4d 2023). 이는 책을 관통하는 주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총 17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소셜미디어 게시물처럼 다수의 이미지와 짧은 글로 구성되었다. 글의 주요 내용은 태국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서체의 제작 배경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다. 본문은 타이포그래피뿐 아니라 예술을 활용한 민주화 투쟁

1) 이 글에서 태국어의 한글 표기는 『뭉타입』에서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의 내용을 다루고, 부록은 201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루어진 태국 민주화 투쟁 연대기를 다루고 있다.

시위와 투쟁 과정에서 사용된 서체로는 ‘FC 레벨체’(3장), ‘TH 폰트 패밀리’(4장), ‘카나라싸던체’(5장), ‘카나라싸던 동판 서체’(6장), ‘타이-나릿체’(7장), ‘탕마라이체’(8장), ‘후아하이체’(9장), ‘33712 체’(10장), ‘짚 푸미삭체’(11장), ‘프라차티파데이프체’(12장)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예술과 퍼포먼스를 활용한 민주화 투쟁 관련 기록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운동에서의 글꼴’(1장), ‘프로필 사진 프레임 전쟁’(2장), ‘두 개의 <홈랜드>’(13장), ‘예술의 자유를 위한 투쟁’(14장), ‘자유미술’(15장), ‘탈루…브랜딩’(16장), ‘자음 교본’(17장)의 내용을 다루었다.²⁾ 책의 내용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구성 방식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분절된 형태를 띤다.

저자가 ‘도구의 민주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보는 서체는 3장의 FC 레벨체(FC Rebel)이다. 타투이스트인 푸옹분 짜이엔(Peungboon Jaiyen)은 2014년에 스케이트보드 위에 첫 스케치를 한 후, FC 레벨체를 타투와 시위용 피켓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서체는 민주화 시위 단체 가운데 하나인 ‘UNME of Anarchy’의 상징과 깃발의 글자 초안을 만들면서 구체화되었고, 이후 시위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서체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변화하였다. 푸옹분은 폰트가 자연스럽게 진화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상징이자 민중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FC 레벨체가 정부나 기업에 소유되지 않고, 민중의 손에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도구의 민주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45쪽).

또한 5장, 6장, 7장의 총 세 장에 걸쳐 카나라싸던체(Khana Ratsadon, 인민당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2020년에 만들

2) 책에서는 장 번호가 없지만, 편의를 위해 순서대로 장 번호를 부여하였다.

어진 카나라싸던체가 5장, 카나라싸던체의 원형이 된 카나라싸던 동판과 관련된 내용이 6장, 동판 위에 새겨진 서체의 원형인 타이-나릿체(Naris)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배치되어,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나라싸던체는 1932년 6월에 일어난 시암혁명의 정신을 담아낸 디지털 폰트로, 카나라싸던 동판 위의 레터링을 원형으로 하여 2020년에 만들어졌다. 이 폰트는 세 손가락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의 요구와 훗날 스스로를 ‘카나라싸던2563’³⁾이라 칭하는 학생 운동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53쪽). 팻 파혼요틴(Phot Phahonyothin)이 인민당 선언문을 낭독한 자리에 설치되어, 시암혁명의 상징이 된 카나라싸던 동판은 2017년에 홀연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나사이(밝은 얼굴) 동판’이 설치되었다. 저자는 이 과정이 태국 정부가 인민당의 역사적 유산을 변형하고 훼손한 행위라고 본다. 7장에서는 카나라싸던 동판 위에 새겨진 서체의 원형인 타이-나릿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서체는 나리사라 누와티왕(Narisara Nuwattiwong) 왕자가 납작펜과 납작붓을 도구로 하여 만든 것으로, 서양에서 사용하는 블랙레터체(Blackletter)⁴⁾의 도구와 필법에서 유래했다. 나릿체는 태국의 궁정 및 의례 현장에서 사용되었다가 간판 제작자와 장인에게 전해져, 오늘날 전당포 간판이나 길거리 음식 가판대의 아크릴 사인에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독일에서 나치당의 민족주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던 블랙레터체가 태국에 유입되어 타이-나릿체로 변화하고, 궁정과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서체가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도구로 변화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3) ‘2563’은 태국에서 사용하는 불기 2563년(서기 2020년)을 의미한다.

4) 인쇄술을 발명한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사용하던 손글씨체를 반영한 글자체 양식이다. 끝이 넓적한 펜으로 쓴 굵고 수직적인 획이 특징으로, 사용된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시 텍스추라체(Textura), 로툰다체(Rotunda), 베스터다체(Bastarda), 프락투어체(Fraktur)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2). 프락투어체는 나치 집권기에 탄넨베르크체(Tannenberg)와 같은 서체로 파생되었다.

국왕모독죄(형법 112조)와 군사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만든 타이포그래피로는 탕마라이체(Thang Maa Lai, 횡단보도체), 후아하이체(Hua Hai, 머리 없음체), 33712체, 그리고 ‘자음 교본’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그래픽 서체가 있다. 탕마라이체는 횡단보도처럼 보행자 시민의 안녕과 법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횡단보도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후아하이체는 태국 정부가 국민의 “머리를 무시한다”(78쪽)는 의미에서 서체의 머리를 제거하는 표현을, 33712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약 3만 3천712바트(10억 달러)에 달하는 사치스러운 왕실 예산 집행에 분노하여 하원의원이 제시한 그래프 이미지를 활용해 서체를 제작하였다. 자음 교본은 수십 년간 태국 어린이가 배우고 부른 ‘타이 문자 노래’의 노랫말에 의문을 제기하며, 44개의 자음에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더해 제작한 문자도 프로젝트이다. 타이포그래퍼(tyographer)는 왕정과 군부에 대한 분노와 반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시각적으로 발화한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프로필 사진 프레임 전쟁’(2장)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이미지, ‘두 개의 <홀랜드>’(13장)처럼 음악가와 협업한 작업 등 다양한 예술과 퍼포먼스 활동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저항의 움직임은 2020년부터 태국 청년 세대가 일으킨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작가,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인플루언서, 유튜버, 아이돌 그룹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다(110쪽). 작업은 운동과 시위를 지원하는 기금 마련에 활용되었고, 타이포그래피는 민주화 투쟁의 실천인 동시에 원동력이 되었다. 저자는 태국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예술 영역이 국가, 종교, 군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신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타이포그래피를 ‘투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말한다.

다시 만나는 민주화 투쟁

누군가는 시위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린다. 프라차티파타입을 비롯한 태국의 타이포그래피는 타이포그래피를 투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와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기록한다. 하지만 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은 쉽게 간과되었다. 태국은 사용할 수 있는 서체의 종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체를 사용할 때 정부의 규제도 받는다. 타이포그래피는 “육교, 사원의 벽, 고속도로 아래에 아무렇게나 적은 메시지 내지는 종잇장 위의 한낱 ‘글자’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으며(12쪽), 타이포그래피를 배울 마땅한 교재나 학문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왕실모독죄와 사이버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2014년에 일본으로 망명한 빠윈 차차완퐁판(Pavin Chachavalpongpun)은 이 책에 실린 타이포그래피가 특유의 예술 형식인 동시에 존재 자체로 국가 권력에 맞선 투쟁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 안에 담긴 강인한 힘과 독특한 미학은 정치적 싸움에서 무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른 예술 형식과 마찬가지로 기록 및 수집되고, 전시될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13쪽).

빠윈이 언급한 대로 타이포그래피라는 존재 자체에 주목하자면, 타이포그래피라는 물질은 정동적(affective) 의미를 지닌다. 타이포그래피는 시위 참여자들이 느끼는 일차적인 슬픔과 분노의 정서를 넘어, 대면 혹은 비대면의 마주침 속에서 힘과 생명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타이포그래피는 시위자 “사이(in-between-ness)의 한가운데서, 즉 행위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 한가운데서”(그레그 외 2015) 그들이 느끼는 정동을 연결한다. <몹타입>은 타이포

그래피를 통해 민주화 투쟁의 장(場)에서 인간과 비인간 개체가 주고받는 관계의 그물망을 보여준다. 또한 타이포그래피는 다른 예술 매체와 달리 이미지가 아닌 문자 언어로 시각구술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김미혜 외 2022). 시위에 대한 시각적이고 정동적인 기록은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다시 마주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정치 연구와 민주화 투쟁사, 디자인 사에 두루 확장적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엘로우 셔츠와 레드 셔츠, 중산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이라는 정치적 양극화와 더불어 군부와 탁신 정권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젊은 세대(MZ세대)의 등장과 세대 균열은 태국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정우 2023). 이러한 측면에서 태국 민주화 투쟁에 대한 예술적 실천과 기록은 태국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분노의) 감정을 창작의 영감으로 삼아, 증오를 재생산하고 전염시키는 대신 유머와 풍자”(147쪽)로 시위에 나서는 태국의 젊은 세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투쟁은 태국식 민주주의의 이념형(ideal type)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현장을 비교문화적으로 분석할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타이포그래피와 시각 문화를 중심으로 한 비교문화 연구는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새롭게 바라볼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가 희망한 대로, 이 책이 태국의 민주화 투쟁을 이해하는 유용한 “정치적 아카이브”로 활용되길 바라고, 태국인이 하루속히 “식탁을 차리는 일상”(148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⁵⁾

5) 저자에 따르면, “누가 정권을 잡든 식탁만 차릴 수 있으면 된다”는 말은 태국 관용어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 강희정. 2018. “외연의 확대, 지평의 확산: 동남아 미술 연구 10년.” 『동남아시아연구』 28(3): 43-74.
- 김미혜 · 김민수. 2022. “뜻과 획의 예술: 북한 서예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아시아리뷰』 12(3): 205-235.
-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2015. 『정동이론』. 서울: 갈무리.
- 송찬섭 · 김양식 · 김정인 · 오제연 · 남영호 · 김종원 · 황동하 · 이원근 · 정대성. 2023. 『저항의 축제 해방의 불꽃, 시위: 농민항쟁에서 촛불집회까지, 파리코뮌에서 68혁명까지』. 파주: 서해문집.
- 이정우. 2023. “태국의 세대 정치: 세대의 차이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동남아시아연구』 33(4): 85-121.
- 전제성. 2019. “한국의 동남아연구 재발견과 학계의 과제.” 안청시 · 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25-349.
-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2. 『타이포그래피 사전』. 파주: 안그라픽스.
- art4d. 2023. “PRACHATHIPATYPE.” <https://art4d.com/en/2023/01/prachathipatype> (검색일: 2025/01/28)
- Chizhova, Ksenia. 2022. “North Korean Calligraphy: Gender, Intimacy, and Political Incorporation, 1980s-2010s.” *Journal of Korean Studies* 27(2): 275-304.
- Haenschen, Katherine and Daniel J. Tamul. 2020. “What’s in a Font?: Ideological Perceptions of Typography.” *Communication Studies* 71(2): 244-261.

